

광주과기원 'AI 피아노' 美서 전시·연주 눈길

'Newsweek AI Impact Summit' 초청 안창욱 교수 개발 AI 작곡가 '이봄' 탑재 사용자 감정 파악 즉석 작곡·연주 해외 전문가·글로벌 기업 등 호평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연구소가 국내 최초 AI 작곡 및 연주 시스템인 '이봄 AI 피아노'를 미국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1일 GIST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서 열린 'Newsweek AI Impact Summit'에 특별초청받아 '이봄 AI 피아노'를 전시·시연했다.

이 행사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주최하는 글로벌 AI 컨퍼런스로, 북미와 아시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매년 개최된다.

이봄 AI 피아노는 안창욱 교수가 개발한 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EVOM)'이 탑재된 컴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서 열린 'Newsweek AI Impact Summit'에서 콜롬비아 국제병원 및 심혈관재단(FCV)의 회장 겸 CEO인 빅토르 라울 카스티요 만티야(Victor Raul Castillo Mantilla) 박사가 GIST 인공지능연구소가 개발한 '이봄 AI 피아노'를 체험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단 예술 AI 시스템이다.

사용자의 감정과 상황을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르·템포·조성 등 음악적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즉석에서 작

곡·연주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봄 AI 피아노는 구글 클라우드의 차세대 AI 영상 생성기 '비오(Veo)'와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 코그니전트(Cognizant)의 '뉴로AI(Ne

uroAI)' 등과 함께 전시했으며, 구글을 비롯한 세계 우수 기업 및 의료·정책·기후 분야 리더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 기간 동안 이봄 AI 피아노는 메인 세션과 세션 사이의 배경음악(BGM) 연주뿐 아니라 관객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즉석 작곡 및 감성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콜롬비아 국제병원 및 심혈관재단(FCV)의 회장 겸 CEO 빅토르 라울 카스티요 만티야(Victor Raul Castillo Mantilla) 박사는 "병원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를 이봄 AI 피아노로 교체한다면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예술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실제 도입 가능성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안창욱 소장은 "이번 전시는 GIST가 독자 개발한 AI 작곡 기술의 가능성을 세계 유수의 C-레벨 리더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봄 AI 피아노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의료 현장, 가정,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감성적 가치를 더하는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김대기자



광주매일신문, 맑은누리지역아동센터 NIE 2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맑은누리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NIE(신문활용교육) 2차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 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공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최주안(용두중 2)·김은영(양산초 6) 학생은 신문 만들기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 제목과 사진을 직접 넣어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을 공모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희중기자



광주시육상연맹-수완병원 '선수 경기력 향상' 협약

광주시육상연맹과 광주수완병원은 1일 수완병원 대회의실에서 지역 육상 발전과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상선수들의 정기 건강검진 지원 ▲스포츠 손상 예방 및 재활 치료 협력 ▲운동 처방 및 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의료 자문 및 학술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광주시육상연맹 김민주 회장과 김

재다 전무이사, 광주수완병원 정현운 대표원장과 김범윤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 지역 육상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연맹과 병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운 광주수완병원장은 "지역 체육 발전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하고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담양군 창동회,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재)담양장학회는 "최근 담양군 창동회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창동회는 창평고등학교를 졸업한 담양군청 직원들의 모임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600만원을 담양장학금으로 전달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기탁은 창평고 동문회 회원인 김준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의 공로연수를 기념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철원 담양장학회 이사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위한 소중한 기탁에 감사하다"며 "뜻깊은 후원이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전남농기원 '창농기업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최근 청년창농타운에서 '창농기업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창농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업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마케팅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진오 소장의 최신 마케팅 전략과 성공 사례 특강 ▲6개 팀별 전문 멘토링을 통한 사업 아이템 구체화 ▲참가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창농기업 대표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우리 사업 아이템을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고 팀원들과 함께 10월 헤커

톤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창농기업 네트워킹 & 헤커톤'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창농기업 간 팀빌딩과 협업 모델 도출을 위한 '파실리테이션 네트워킹 데이'를 진행했고, 이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데이'에서는 도출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다.

박용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창농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지역 농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네트워킹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협업과 비즈니스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무안경찰, 차량 탈출 도구 '레스큐미' 보급

무안경찰서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도로 침수 사고에 대비해 차량 내 비상 탈출 도구인 '레스큐미(ResQMe)'를 최근 고위험군 운전자에게 우선 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경찰청 교통과의 여름철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침수 상황 시 유리창 파쇄와 안전벨트 절단 기능을 갖춘 레스큐미를 차량에 비치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차 보급 대상은 침수 위험 지역의 상인과 거주자, 차량 내 체류 시간이 많은 고령 운전자, 택배·버스 기사 등 생업형 운전자 50명이 선정됐다. 경찰은 레스큐미 사용법을 담은 QR 코드를 함께 배포해 현장에서 직접 사용법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교육도 병행



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짧은 시간 내 생사를 가릴 수 있는 침수나 사고 상황에서 레스큐미는 운전자의 '차량 생명줄'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반응과 필요성을 검토해 2차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광주교육청·전공노 교육청지부 '청렴 실천 캠페인'

광주시교육청은 1일 본청 현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와 공동으로 '청렴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사 이동 시 떠나는 동료 간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간식을 주고 받는 것을 대신해 동료와 마음을 나누는 청렴한 조직 문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정선 시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여해 "환영은 마음으로, 청렴은 실천으로"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나뭇잎 스티커로 '청렴나무'를 꾸미기도 했다. /김대기자

최정식 제27대 광주 서부소방서장 취임



최정식(사진) 제27대 광주 서부소방서장이 1일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양동시장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 서장은 시장 내 화재 취약시설, 소방시설과 주요 피난통로 확보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을 만나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해 양동시장 천변주차장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과 사전 안전조치, 유사 시 소방력 대응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최정식 서장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소방의 존재 이유이자 첫 번째 임무"라며 "선제적인 안전조치와 현장 총력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 출신인 최 서장은 1985년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제19대 광주 북부소방서장,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119대응과장 등을 역임했다. /주성학기자

노회동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부임



노회동(사진)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이 1일 부임했다.

노 소장은 지난 2000년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 태안 해안, 설악산 등에서 근무하며 국립공원 현장 경험을 쌓았다.

또한 경영기획부와 ESG혁신실 등 본사 주요 부서에서 공공기관 성과관리, 조직혁신 업무를 맡아 탁월한 행정 역량을 발휘해왔다.

노회동 소장은 "광주의 어머니 산인 무등산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탐방객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와 호남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무등산국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주성학기자

박관하 다도해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 부임



박관하(사진)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소장이 1일 부임했다.

박 소장은 1994년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해 계룡산, 본부감사기획부, 북한산, 소백산 국립공원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본부감사부장을 거쳤다.

박관하 소장은 "자연 생태계를 보전·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공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공원에서 임무를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립공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주홍철기자



광주시, 신규·승진 소방공무원 55명 임명

광주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승진 소방공무원 5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된 신규 소방공무원 17명은 지난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9월23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24주간 광주소방학교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실무, 실물화재훈련 등 현장실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일선 소방기관에 배치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날 소방정 2명, 소방령 3명, 소방장 12명, 소방위 6명, 소방장 6명, 소방교 9명 등 38명의 승진자도 임명장을 받았다. /71수회기자

결혼

▲박종덕·백미정씨 아들 준용군, 박준수전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임혜순씨 장녀 지은양=6일(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55 더컨벤션 송파문정점 13층 아모르홀. 010-6232-3078.